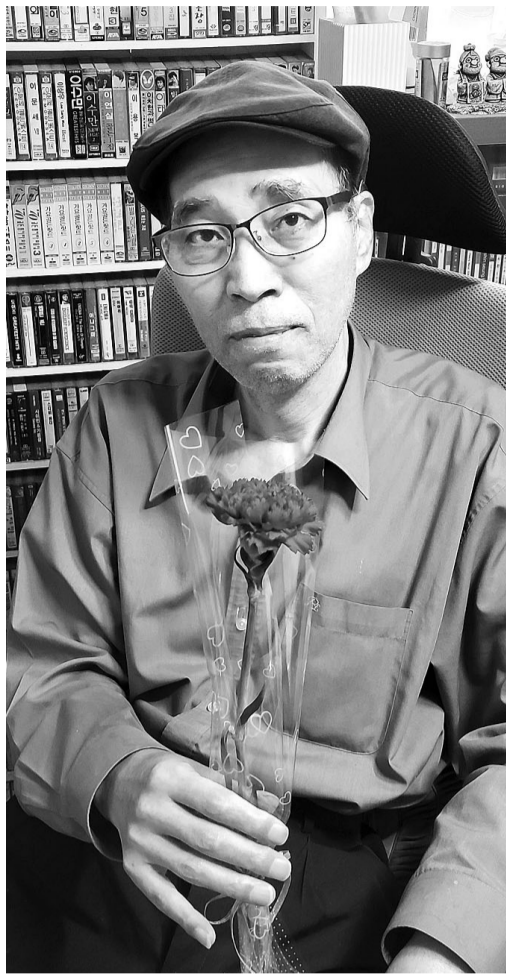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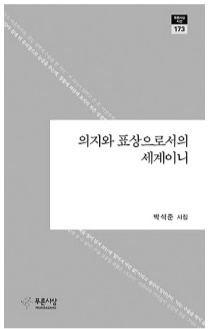


# “자유 의미와 ‘인간적인 삶’ 묻고 싶었죠”

### 광주 출신 전교조 해직교사 박석준 시인 ‘의지와 표상...’ 펴내 역경 속 사람들의 현실 삶 그려 “흔들리는 이에게도 아름다움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의 파산, 대학교 1학년 당시 남민전 사건에 관련된 형들의 수감, 1983년 형들 사건으로 1983년 안기부에서 각서를 씌, 1989년 전교조 결성 이유로 해직을 당함. 대부분 시인은 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있다. 어느 날 문득 시가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석준 시인(65)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시인의 운명을 잠시 생각했다. 그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듯 했다.

“남민전 사건으로 형들이 무기형, 15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까닭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제게 소외와 아픔, 상실, 슬픔, 불안, 절망과 같은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네 번째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 (푸른사상)을 펴낸 박석준 시인. 첫눈에도 다소 병약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어 보였다. 내면에 여린 감성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한 웅이 같은 게 느껴졌다.

그는 “꽃나무가 주는 자극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더 깊은 마음을 쏟겠다”며 “세상살이, 사람살이에서 섬세하고 신중하게 살아가겠다”며 시집 발간 계기를 말했다.

초록색의 표지와 달리 시집에 담긴 시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마도 살아온 삶이 시집에 투영돼 있기 때문일지 몰랐다. 대개의 경우 시는 시인이 살아온 만큼의 텍스트를 구현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에 따르면 광주 계림동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집안이 파산했다. 언급한 대로 그가 대학교 1학년 때 형들이 남민전 사건에 관련되던 서다. 당시 해남 출신 김남주 시인 등이 구속됐고

많은 이들이 옥고를 치렀다.

“사람은 자유로운 혹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막친 어려운 조건들은 이후 그의 삶을 지배했다. 허약한 몸과 집안의 파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수감된 형들에게 영지금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어렵게 임시교사 자리를 얻었지만 안기부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교사생활을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냈다.

“당시 식구들은 여관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지라 그 조건을 수락해야만 했어요. 그 후엔 3년 정도 수업도 감시받았습니다. 저는 어떡해서든 몸은 아프지만 직장을 잡아 집안을 건사해야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삶도 평탄치 않았다.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곳에서 교육현실을 알게 되면서 교육운동의 길을 선택한다. 평교사협의회,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고 해직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시인은 “가난이나 곁여 혹은 소외로

인해 흔들거리는 사람에게도 ‘살아온 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주시한다.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자유의 의미와 인간적인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새겨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은 그 때문이다.

“...말소리가 그 사람의 형상을 병실에 그려낸다./ 말소리는 사랑 있는 사람의 형상이다./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형상을 시간에 그려낸다./ 63살 2020년 2월로 온 나는 삶이 저지른 죄가 있지만./ 사람의 소리, 시이면 좋겠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표제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니’는 민낯으로 진심으로 살아온 시인의 삶이 응집돼 있다. 남몰래 속으로 삭여온 지난 시절은 아리지만 깊은 여운을 준다. 여기고 순수한 진실한 화자의 모습이 겹쳐진다.

시를 쓰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때인 1979년 친구의 권유로 전남대 융복문화회에 가입하면서다. 그에 따르면 길에서 만난 조진태, 이승철 시인 등 시인이 꼽은 청년들을 만나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시를 쓰게 됐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1985년 ‘흙’이라는 시 형식의 글을 썼고 수감된 지 9년이 되어도 풀려나지 못하는 형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나의 처지를 새워하다가 ‘일상 1-1’이라는 시 형식의 글을 썼다”고 했다.

그의 문단 데뷔는 지난 2008년 문학마당에 ‘카페, 가난한 비’가 당선되면서다. 이후 자서전 ‘내 시절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과 시집 ‘거짓 시, 소원도 세상에서’ 등 모두 4권의 문집을 펴냈다.

고(故) 문병란 시인과도 인연이 깊다. 박 시인에 따르면 문 시인과 창작활동을 담은 100여 통의 편지 교류는 문학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

“선생님이 시를 적어 편지를 보내면 저 또한 답장을 해야 했기에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글을 보고 습작시, 초고, 미완작, 수작, 패작 등으로 생각을 적어 편지에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 조진태 시인은 “애잔하다 싶으면 그의 격정에 놀라고 가냘프다 곰곰이 마주하면 그의 강인한 삶의 의지와 불굴의 응전에 경외하게 된다”고 평한다.

/박석준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 영화계 거점 3곳 운영비 지원

### ‘광주영화영상인연대·독립영화관GIFT·광주극장’ 영진위 사업 선정



광주독립영화관GIFT 내부.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독립영화관 GIFT, 광주극장.

지역 영화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곳이 2023년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세 단체는 이번 사업 선정과 함께 올해를 광주영화의 재장전의 해로 삼고 광주시와 시의회 등과 협력, 지역 영화의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지역영화문화를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청하는 국비 사업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는 총 13개 지역, 17개 네트워크, 76개 단체 중 총 9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 영화문화 생태계 형성 기여, 지역 거점으로서 단체의 역할 등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반영한 충실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된 점이 인정받았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독립영화관GIFT는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2억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신청 극장 중 최고 지원 액수다.

국내 유일무이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27개 상영관이 지원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최고 금액인 1억 원의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역 영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창립한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다양한 단체 및 영화인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는 ‘광주영화 재장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주영화인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내외 영화인들과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후속세대 발굴과 양성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광주영화인들은 광주독립영화관과 광주극장이라는 물리적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실행협의 운영 ‘지역영화 오픈 세미나’, ▲장제작 역량 강화 ‘백투더 스퀘어’, ▲광주영화 창작 원천 소스 개발 ‘리서치 시네(CINE) 투어’, ▲광주영화문화사 아카이브 ‘광주극장 해부도’, ▲광주영화비평지 ‘썬1980’ 발행, ▲광주어린이청소년영화 플랫폼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기획자’ 꿈꾼다면

### ‘호랭이스쿨’ 3기 교육생 모집... 교육비 무료 5월~12월 교육

청년 큐레이터 유명진씨는 최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주최한 신진 큐레이터 공모전에서 우승, ‘보물찾기: 빼앗긴 호기심을 찾아서’ (6월27일까지 롯데갤러리)전을 진행 중이다. 대학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한 그는 ‘호랭이 스퀘어’의 문화기획 강좌에 참여해 직접 전시를 꾸렸었다.

문화기획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예비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실전형 문화기획 전문학교 ‘호랭이스쿨’이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지난 2021년에 이어 진행되는 호랭이스쿨은 청년문화허브가 운영하며 광주시가 후원한다.

만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문화기획자 지망생은 물론 역량 강화가 필요한 현직 기획자, 기획 능력이 필요한 예술인(지망생) 등 실전 문화기획을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이

참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5월 초부터 12월 말이며 기획 입문 과정(문화기획자의 삶, 역할, 활동분야 등), 기획서 작성, 기획 실무(자원조사, 홍보, 현장운영, 행정·회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프로젝트 실습, 현장 문화활동 연결 및 컨설팅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 문화활동 연결과 컨설팅, 교육생 아티스트 공간, 프로젝트 실습비, 최우수 참여자 2명 시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문화허브 블로그(blog.naver.com/culturehub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호랭이스쿨 1, 2기 수료생들은 전시·공연 기획 단체, 시민문화단체, 독립서점, 문화 프로젝트 등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문화예술위 신임 사무처장에 송시경 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 제7대 사무처장에 송시경 씨가 임명됐다.

송 신임 사무처장은 1992년 예술위 입사 후 경영전략본부장, 예술창작본부장, 예술공간운영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예술현장과 문화예술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술위는 사무처장 임명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

는 사무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월 17일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3월 20일 사무처장 후보자 3인을 임명권자인 위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이후 위원장은 후보자별 면담을 통해 역량을 검증했다.

지난 3월 31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송시경 씨를 사무처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이번 사무처장을 내



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위원회와 사무처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 신임 사무처장의 공식적인 업무 일정은 4월 10일에 시작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돈돈한 지킴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